

#1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화탑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허브농장을 특수학교의 지적장애학생들과 가꿀 예정이다. 또 이들이 실제로 허브를 재배하고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계획 중이다. 나아가 교육생 중 일부가 농장이나 허브상품 매장·카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중 일부를 적립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활용할 것다는 구상이다.

#2 곡성군 겸면 괴정리 '항꾸네협동조합'은 선배 귀농인들이 농업기술과 농촌 정착 노하우를 전수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다. 귀농인들이 연대해 지난 2013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난해에는 귀농청년들을 위한 세어하우스도 설치한 바 있다. 올해는 이번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위한 농업·생활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생산한 농산물은 협동조합 식당을 비롯해 직거래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층 대비 '사회적 농업' 뜬다

화탑 영농조합법인과 항꾸네협동조합 등 농도(農都) 전남지역의 2개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에 선정됐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사회적 농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돌봄·교육·일자리 제공...농촌 활력 기대
농림부, 전남 화탑 영농조합법인·항꾸네협동조합 2곳 선정

농업이 중심에 있지만 돌봄·교육 등 내용이 다양해 지역 학교와 복지시설, 농업인, 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9개씩 총 18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은 마을 노인들에게 야생화 화와 모시 등 재배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광의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과 다문화여

성들과 원주민 간 멘토링을 통해 공유주방, 꾸러미사업을 운영하는 해남의 아호해남 영농조합법인 등 총 4개소가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사업자들은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사업자들과 2월 중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

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회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네트워크 및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외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북미정상회담 진전 긍정 작용 증시 하락폭 단기적 개선될 듯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미국증시가 지난 12월에만 다우지수는 -8.66%, 나스닥지수는 -9.48%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에도 지난주 목요일 애플의 실적 경제둔화 공포로 확대되면서 3대지수가 2~3% 급락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제록스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화건설이 속도조절 발언을 내놓으면서 급락했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7~8일 베이징에서 서관급 무역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지수는 +3.2%, 나스닥지수는 +4.26% 급등했다.

코스피지수도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미·중 차관급 회담 소식과 풀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후보자로 사전 답사를 파견했다'는 인터뷰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다. 증권사의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 경기둔화의 글로벌 경기둔화로 확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10년 주기 위기설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다수 의견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매우 많다.

다수가 상승한다고 확신하는 시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수의 공포심이 극도로 확대되어 추가하락을 확인할 때 바닥이 형성된다. 최근 미국 경기지표 둔화 및 증시 하락으로 3월 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고 미국정부와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조정장에서의 반등국면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주 7일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7~10)는 지난해 1월 제약바이오주 상승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올해 컨퍼런스 관련기업에 시장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애플의 실적하향 조정과 반도체실적 고점 논란으로 IT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11일 이전)도 예정되면서 최근 급락한 기술주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증시는 미국증시와 동조화가 약화되었지만 중국증시와는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셋아웃이나 미국 정치이슈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정상회담의 진전은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금주는 국내증시 하락폭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권사들의 증시전망을 살펴보면 매우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식품정책자금 융자 지원 aT 수출지원자금 등 6122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122억원 규모의 '2019년 농식품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식품수출지원자금, 식품안전관리지원자금, 수출·식품시설현대화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거나, 사업준비 중으로 2019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다. 또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무등산서 새해맞이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최근 무등산 서석대에 올라 '희망 2019년 농업발전 결의대회'를 갖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영농지원 및 조기 사업추진을 결의했다. 이어 농협 직원들은 서석대부터 원효사까지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올 청년 농부 1600명 신규 선정 영농정착 지원

농업·유통업 등 20개 업종
올해도 청년 농부 1600명을 뽑는다. 정부는 이들이 농촌에 정착해 머무를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지원키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따라

면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농업 분야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600명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착지원금을 사용 가능한 업종은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으로 한정해 지원한다.

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농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영농 이행상황, 교육·정책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실적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선발 과정에서 소득이 부족해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농 창업자금 대출을

3150억원으로 늘리고 10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새로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빌려준다.

여성 청년농부에 대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농업 유예를 인정해 이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발농사 스마트 영농모델 개발사업 공모 농림부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노지(일반 밭) 작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 영농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대상 작물을 기존 채소(무·배추·양파·고추)에서 일반 노지에서 재배되는 밭 작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와 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는 함께 할 ICT 장비 모델과 농가를 찾는 뒤 농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된 뒤 선정된 모델은 성과분석 등을 거쳐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이나 콜센터(1522-29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